

■ 보도자료 ■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 철회요구 거부한 경남도 김두관 지사를 규탄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다면서
4대강사업을 찬동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경남도는 각성하라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2012. 04. 20)

지난 4월18일 우리는 경남도의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해당 기자회견문을 도지사 비서실에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9일 어제 경남도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우리의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 철회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통지해왔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다면서도 4대강사업 낙동강자전거길 개통식을 주관하는 김두관도정을 이해할 수 없다. 4대강사업이라는 명칭만 빼면 낙동강 자전거길이 4대강사업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 김두관도정이 도민을 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에 김태호도지사는 이명박정부가 한반도 운하 중단을 선언하자 사업내용은 변함없이 사업명칭만 “낙동강 물길잇기” “낙동강 하천정비” 등으로 변경해가면서 중단된 한반도 운하사업을 되살려내었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에 우리는 경남도 김두관지사 규탄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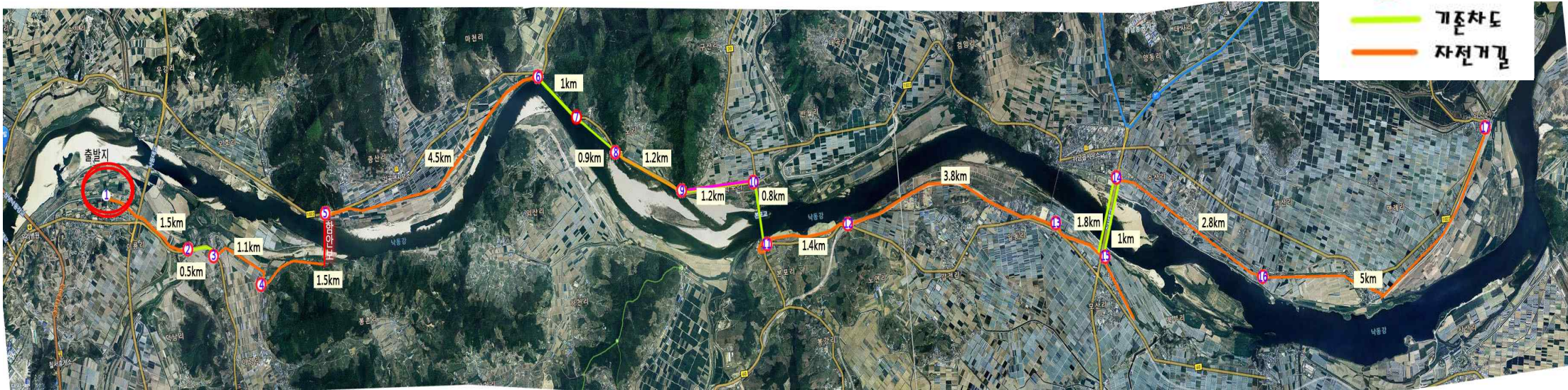
- 일시 : 2012년 4월22일(일) / 오전 9시 50분
- 장소 : 개통식 행사장 입구 제방

지난 4월18일과 19일 양일간 우리는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주관하는 4대강사업 낙동강자전거길 개통식을 앞두고 자전거길 실태를 파악하였다. 실태조사결과를 첨부한다.

◎ 자전거길 실태조사결과 문의 : 광빛나 간사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 및 자전거대행진]

❖ 4월 22일 자전거의 날 전체 행사경로



◎ 간략설명

총 7구역

총 17지점

총거리 : 29km 왕복거리 : 58km

▶ 지도상 거리상정임으로 경상도 계획 왕복 56km와는 다도 차이가 발생.

I 구역



1. 출발지
정확한 출발지점은 확인 못함.



3.
갑자기 자전거 도로가 끝나지만
정확한 표시가 없음.
자전거 횡단구역임에도 앞뒤로
경고조차 없어 사고위험이 따름.
그리고 마을길로 자전거길이
이어지지만 희미한 표시만 있음.
마을 회관을 확장실로
사용하라는 표시가 있음.



(왼쪽부터 오른쪽
위로 설명)

2.
일반도로와
자전거 길이
끝나는 지점.



II 구역



5.

함안보를 건너는 인도를 자전거 길로 만들어 놓음.



4. 곳곳에 교통통제안내표시가 있음.



III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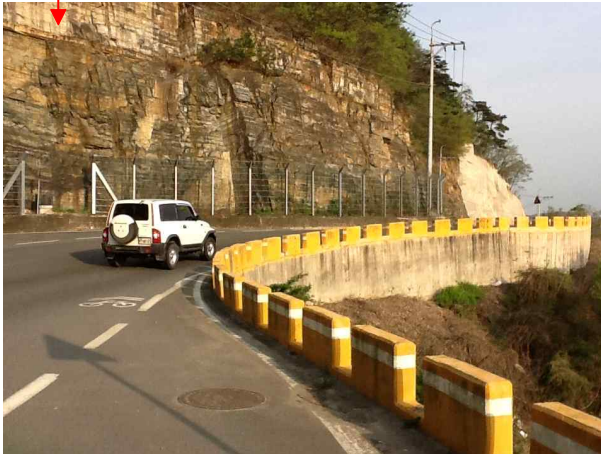


6.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설명)

자전거 횡단구역 표시가 명확하게 표시가 없음.
자전거도로 해체표시 후 일반도로로 이동함.
빨간 표시가 자전거 길이지만 위험함.



7. 아래 장에서 설명(8지점과 같이 설명)



III 구역



8.

구불한 길이 계속해서 진행되지만 자전거 길과 일반도로가 함께 진행됨.
일부구간은 중앙선조차 표시 없지만 위험표시가 없음.
낙석주의표지판과 낭떠러지주의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되어있음.



IV구역



9.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왼쪽 도로에 자전거 표시가 있었으나 지우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농로를 자전거 길로 바꾸는 작업 중.



11.

일반도로에 자전거길을 역지로 만들다보니
 다시 자전거길이 해제되지만 어떤 표시도 없음.
 나무데크식 자전거도로를 타고 제방으로 내려감.



10.

일반도로 옆에 자전거 길이 만들어졌으나 길과 구분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



V 구역



12.

자전거 길 해체 표시와 함께
공사가 진행중이었음.
제방을 따라 자전거 길이
만들어져있는지 12지점과
13지점 사이를 확인 못함.



VI 구역



13.

12지점에서 자전거 길이 해제되고 이어지는 자전거길을 13지점에서 확인한 바 제방위로 이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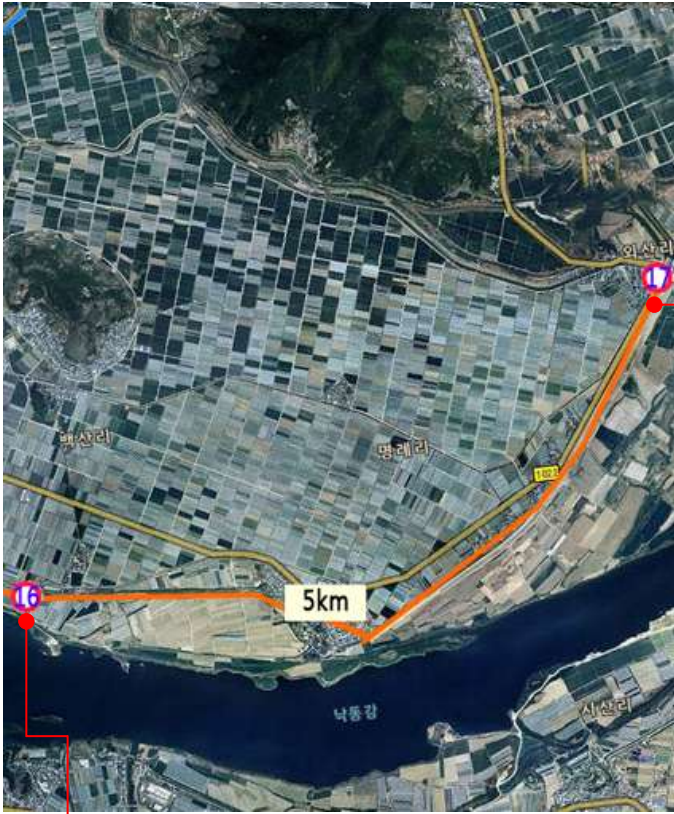
14 , 15.

14지점과 15지점은 동일한 방식으로 공사 및 나무데크식 자전거 길과 제방위로 이어져 같이 설명.

위험 교각하부 공사 중 서행이란 표지판과 가로등 밑에는 자전거와 부딪치지 않도록 설치해 둬.

나무데크식 자전거 길은 경사가 급격하여 자전거를 들고

VII 구역



16.
자전거전용도로 해제 간판과 함께 일반도로로 연결됨.
16지점에서 17지점은 모두 제방을 자전거 길로 만들어져 있음.



17. 국토종주라는 표시가 제방 위로 계속 되며, 차량은 진입 금지되어있음.

